

# 라인홀드 니버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 —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기독교의 역할

유 경 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인류 사회가 염원하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가 발전 중이라고 하면 ‘낭만주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권력의 의지’로 점철된 분쟁의 역사라는 어두운 면만 부각하자니 ‘비관주의 자’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역사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 그는 ‘이상주의자’ 입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희망과 절망, 자유와 억압,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성과 신앙 사이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도 이런 맥락에서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의 사조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급 간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한 현 인류 사회의 정치적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참상을 경험한 국제 사회의 갈등에

서 꽃을 피운 서구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과 경제의 분배에 그 목표를 둔 민주주의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유를 신장하는 인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서구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인간 정신의 세계화가 아닌 상품의 세계화로 그 의미가 퇴색한 ‘세계화’의 틈 사이에 ‘국제 금융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국제 사회를 보호 무역주의로 전환하게 하고 있고, 신 냉전 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은 전 세계를 군비 경쟁의 시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성찰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라인홀드 니버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학문적 맥락에서 민주주의 안에 작동하는 권력의 속성을 깊이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정치 윤리의 관점에서 니버가 제시한 예언자적인 성찰은 민주주의 이면에 있는 허구와 실상을 낱알이 파헤치고 기독교가 취하여야 할 공공 영역에서의 사명에 대하여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이 논문의 한계는 지면의 한계상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니버의 관점을 상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으며, 현 국내의 정치적인 현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sup>1)</sup> 다만 니버의 정치 윤리 사상을 통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명할 수 있는 예비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후 관련 논문을 기대한다. 선행 연구로서 라인홀드 니버의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sup>2)</sup> 주로 시민 사회와 연관된

1) 월자의 이해로 조선의 봉건제와 일제의 수탈, 그리고 미군정 시기를 거쳐 형성된 한국형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정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 정부는 2016-17년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극심한 지역 갈등에 따른 남남 갈등은 남북의 이념적 이데올로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심각한 사회 분쟁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분열과 지역색을 극복하는 화해와 조정의 정치가 더욱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더군다나 현 기독교가 비치는 공공 영역에서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며 사적 영역에서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인간론에 집중되어 있어 본 연구를 통하여 니버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니버가 중시한 민주주의의 역사적 관점과 한계,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분석이 기독교 정치 신학 이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I. 라인홀드 니버의 민주주의 개념

니버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그의 정치 신학에서 이론으로 소개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sup>3)</sup> 니버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며 아울러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니버가 이해한 민주주의는 18세기부터 시작한 자유주의의 이성적 낙관주의와 연관이 된다. 니버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정부는 중세의 귀족정과 같은 형태의 정치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민주적인 [통치] 기술”을 통하여 상충하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화롭고 점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만 만족할 만한 민주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sup>4)</sup> 니버는 민

2) 강정희, “라인홀드 니버의 민주주의론에 근거한 한국 시민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과 사회』 30(2) 2016, 43-81. 참고로 “DBpia”를 통하여 니버의 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주로 정치, 국가, 권력에 대한 논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배호는 니버가 분석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균형과 견제’에 있다”고 논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니버가 강조한 면을 지적한다. 한배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요체와 평가,” 『신학사상』 제182집(2018 가을), 한국신학연구소, 20. 한편, 권오왕은 니버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권오왕, “한국 정치 이행기의 기독교 정치 윤리를 향하여,” 『신학사상』 173 (2016/여름), 한국신학연구소, 153. 필자의 견해로는 결과론적으로 니버는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본다.

주주의가 계몽주의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계몽주의가 강조하는 이성에 대한 과도한 과신, 즉 “보편적인 정의와 조화로 나아가는 단일한 길”이 있다고 이성을 과대평가한 것은 인간 존재와 사회의 속성인 “비이성적인 생명력”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5)</sup> 니버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성의 발전을 기대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전제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명명한다.<sup>6)</sup> 니버는 민주주의는 서구의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18,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이성적 낙관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치 사회적 분쟁을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조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선과 완전한 합리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sup>7)</sup>

그러나 과연 민주주의에 그러한 합리적 행위와 선을 향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니버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반기를 든다. 니버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평화를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4)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14.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니버의 원전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니버의 저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URL=<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최종 접속: 2020년 8월 18일. 참고로 니버의 주요 저서 중 위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자료들은 별도로 인용을 표기함을 밝힌다.

5)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54.

6)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90. 니버의 인용은 다음과 같다. “Cf. T. L. Talman: *Totalitarian Democracy*.” 니버의 원전은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히며 인용 페이지도 해당 파일의 순서를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 2020년 8월 18일 최종 접속,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Self%20and%20the%20Dramas%20of%20History.pdf>.

7)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84.

유는 영국의 경우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분할을 놓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협정을 맺은 1938년 9월 30일 뮌헨 위기(Munich Crisis) 시 영국의 총리 체임벌린(Chamberlain)이 유화적으로 영국 국민을 달래려고 하였던 것처럼 미국 또한 미국이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독일의 제국주의적 군대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한다.<sup>8)</sup> 니버가 뮌헨 협정에 대하여 분개하는 이유는 국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제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역량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이다. 니버의 판단은 당시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집단의 속성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고, 권력에 의하여 인간을 노예화하고 심지어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하여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는 무지하다고 니버는 지적하고 있다.<sup>9)</sup>

민주주의의 약점으로 니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는 정치적 결단에 관한 것인데, 당시 미국의 경우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은 영국의 총리 체임벌린(Chamberlain)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히틀러(Hitler)의 야욕에 대하여 선견지명이 있었음에도 스페인의 내전을 막지 못하여 프랑코(Franco)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루스벨트조차도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 미온적이었다고 니버는 비판하면서 국제 정치에서 전제주의적 폭거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하여 애석해하고 있다.<sup>10)</sup>

둘째, 니버는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으며, 18-19세기 근대주의의 시대 계급 간의 권력 투쟁은 지주들에 대한 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연합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기치를 올렸지만, 이후 니버 당시에는 노동자들, 대지주들과 상공인들 간의 쟁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공인들이

8) Ibid., 66. 이 글에서 “뮌헨 위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다음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URL=https://namu.wiki/w/%EB%AE%8C%ED%97%A8%20%ED%98%91%EC%A0%95.

9) Ibid., 68.

10) Ibid., 71.

지주들과의 연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sup>11)</sup> 니버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영향에 대하여 지적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가톨릭 정당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하였다고 보며, 아울러 영국에서도 정당 사회주의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을 통하여 같은 시도를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니버는 분석하고 있다.<sup>12)</sup> 니버는 민주주의의 출현에 따른 그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다. 니버는 민주주의가 중산층의 자본주의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적 집권층의 과두제를 초래하게 되어 약한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파시즘과 같은 형태의 정치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sup>13)</sup> 니버가 파악한 서구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식의 민주주의와 다름이 아니다. 니버는 부르주아 문명은 16세기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정점에 이르렀지만, 니버 시대에는 파국의 운명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단하면서 민주주의가 중산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한 그 운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sup>14)</sup>

이런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희생해서라도 개인을 종종 중시하였던” 전력이 있다고 니버는 지적하며, 그러나 극단적 개인주의는 피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적인 민주적 질서는 자유의 조건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며, 질서의 틀 안에서

11)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49. 니버의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참고로 이 자료는 'plain text'이므로 페이지 인용은 pdf 파일의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PDF by ANGEL (realnost-2005@yandex.ru), 2020년 8월 18일 최종 접속,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ristian%20Library).pdf).

1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183-185.

13)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92.

14)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10.

자유를 유지한다.”<sup>15)</sup>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봉건적 중세관의 전통적인 문화 사회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확인되었다”라고 니버는 정의한다.<sup>16)</sup>

셋째, 니버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 권력의 문제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파시즘 형태의 독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니버는 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권력이 민주주의 편도 그렇다고 제국주의 편도 아닌, 마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주도권을 위하여 싸웠던 시절”처럼 지나친 독재에 대한 저항이 공산주의로 향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하면서 “계급 이익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시즘에 대하여 동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니버는 설명한다.<sup>17)</sup> 민주주의는 독재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 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권력을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니버는 파악하고 있다.<sup>18)</sup> 독재로 변질할 수 있는 ‘과두제’에 대한 니버의 통찰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역사가 결정적으로 그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면 과두제야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통제가 이를 점검하지 못하는 한, 그것이 사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자본주의적이든 아니면 공산주의식이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분쟁을 조정하는 한 방식으로서의 위기의 순간에 실패하겠지만, 사회 지도자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로서는 정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19)</sup>

15) Ibid., 10.

16) Ibid., 35.

17)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99-100.

18) Ibid., 101.

19) Ibid., 149.

니버는 국가는 각기 이념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식의 명분을 가지지만 당시 독일은 볼셰비즘(bolshevism)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려는 것이었고,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투사처럼 행세하였지만, 스페인에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일에는 오히려 방해되었으며, 미국 또한 파시즘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에 있었지만 실제로 파시즘과 전쟁을 불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0)</sup> 니버는 중산층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소외된 것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것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억압을 받게 된 것을 지적한 레닌(Lenin)의 관점을 언급한다.<sup>21)</sup> 레닌은 민주주의의 자유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노예 소유 지배 계급이 강조한 자유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의 "부드러운 변형의 도구"로서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이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sup>22)</sup>

넷째, 니버는 민주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부상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동시에 공산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한다. 니버의 판단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부정의에 의하여 나타난 정치적 사조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sup>23)</sup> 니버는 비록 부르주아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경제적 과두 정치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공산주의는 잘못 해석하여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계급 규칙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한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sup>24)</sup>

20) Ibid., 108.

21)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149. 니버가 레닌의 이러한 관점을 언급한 인용은 다음과 같다.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p. 89."

22) 레닌의 주장에 대한 니버의 인용은 없다.

23)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92.

24)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9.



니버는 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할 때 공산주의식의 “순수한 무정부주의적 민주주의”(anarchistic democracy)라는 개념을 비판하는데, 이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니버는 지적한다.<sup>25)</sup> 니버는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 전쟁이 큰 규모로 일어나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파시즘에 의한 정치적 혼란이나 독일식의 “반-사회주의적 민주주의”(semi-socialistic democracy)의 경우 경제 계급의 충돌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6)</sup>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로 공산주의가 이미 경험한 절망적인 상황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은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덕과 지혜 그리고 권력의 본래 위선”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공산주의보다 배전의 반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독재를 민주주의로 그리고 제국주의를 보편적 평화주의로 치장하려고 했던 그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니버는 강조한다.<sup>27)</sup>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과거 국제 관계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소 양국의 적대적 군사 관계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민주주의는 군사적 리더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sup>28)</sup>

지금까지 필자는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와 문제점에 대한 니버의 비판을 ‘계몽주의’, ‘부르주아 계급의 출현’, ‘파시즘과의 관계’, 그리

25) Ibid., 70.

26)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190-191.

27)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5. 이하 니버의 원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용하였으며 pdf 파일의 페이지를 명기하였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org, 2020년 8월 18일 최종 접속,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28) Ibid., 81, 84.

고 ‘공산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니버의 ‘민주주의 사관’을 ‘정치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Ⅲ. 민주주의와 정치 윤리의 한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니버는 개인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나 또한 집단의 부도덕성 때문에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나마 만일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려면 소위 기층 사회에서의 문제가 되는 도덕적 가치 개념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높은 지적 수준과 신실한 도덕성을 겸비한 공적 사적 영역의 조직과 특히 상공, 은행,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29)</sup>

니버는 서구에서 민주주의란 “정치적인 체제이자 동시에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교육, 개인의 가치 존중,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이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하는데, 문제는 개인주의를 공동체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에 대하여 우려한다.<sup>30)</sup> 니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도 개인주의의 경향처럼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식의 우월적 문화(Kultur)나 민주주의,

29)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xviii-xix. 니버가 민주주의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사상적 배경으로 인용한 학자는 다음과 같다. “Clarence Marsh Case, *Social Process and Human Progress*, p. 233.” 공적 영역의 서비스와 사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의 조화에 대하여 강조한 니버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용한 학자는 다음과 같다. “Sir Arthur Salter, *Recovery*, p. 341.”

30)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72.

또는 문명, 혹은 북유럽 문화(Nordic culture)”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sup>31)</sup>

니버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하여 살피면서 존 듀이(John Dewey)의 교육 철학을 통한 민주주의의 계몽이나 해롤드 러그(Harold Rugg) 교수의 중등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는데, 해롤드 러그는 미국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도시화 속에서 “지배 경제 계급이 지역 주와 국가 정부를 조정”하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중등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니버는 이러한 관점들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sup>32)</sup>

니버는 또한 루소의 “자유 의지”는 결국 기층 사회의 “일시적인 다수”의 뜻을 따르는 일종의 독재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수의 독재와 같은 이러한 행태는 현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선점하려는 모양새와 비슷하다고 지적한다.<sup>33)</sup> 니버는 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들이 원하는 필수적인 이해관계가 위협에 처하지 않는 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지 못하는 핑계 또한 “문명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식으로 모면할 것이라고 비판한다.<sup>34)</sup>

니버는 결국 근대 문명에서 보편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이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나름대로 끼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보편주의는 논리나 수학과 같은 원리를 기준으로 삼고, 낭만주의는 일종의 이성적 보편주의에 반하여 자연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이성주의의 경우 의회 민주주의를

31)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139-140.

3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212. 니버가 해롤드 러그(Harold Rugg)의 관점을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arold Rugg, *Culture and Education in America*, p. 355.”

33)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112.

34) *Ibid.*, 227.

마치 과학적인 문화의 결실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 또한 각 관점에서 일종의 열광주의와 다름이 없으며 한계에 직면하였다고 니버는 지적한다.<sup>35)</sup>

니버는 민주주의가 한계에 다다르게 될 때 이에 대한 환멸은 비록 정의가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을 끌어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력의 분산, 특히 경제적 권력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36)</sup> 니버는 근대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부정의로 향한 인간의 경향은 민주주의를 필요하게 한다”라고 주장한다.<sup>37)</sup>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가 분석한 민주주의를 정치 윤리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고받은 ‘도덕’, ‘교육’, ‘시대적 사관’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그런데도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니버의 입장을 간략하여 보았다. 이제 다음에서 기독교 정치 윤리의 관점에서 니버가 지적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자.

35)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36-240. 니버는 보편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이성주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별도의 인용 없이 학자들을 소개하는데, 보편주의의 경우, Rousseau, Voltaire, Diderot, Condorcet, 그리고 Godwin을 예를 든다. 낭만주의의 경우에는 Schopenhauer, Fichte, Nietzsche, Spengler, Freud, Marx, Hitler, 그리고 Mussolini를 예를 들고 있다. Ibid, 236-240.

36)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44.

37)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vi.

#### IV. 라인홀드 니버의 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치 윤리의 한계

니버는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충분히 만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독재’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평화’와 ‘독재’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sup>38)</sup> 니버가 분석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상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당시 기독교 정치 윤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통하여 얻게 되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자유” 세계를 전제하여 선택의 폭을 확장하는 중산층의 방식으로서 최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산업 계층의 사람들이 규제와 계획을 통하여 부의 기회를 확장하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sup>39)</sup>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신대륙에 정착한 이후 그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광활한 땅과 풍요를 통하여 덜 가진 자들에게 더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쉽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누가 덜 가지게 되었는지 잘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40)</sup>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권력과 정의, 정의와 자유와의 관계”에 대하여 더 충실한 원리가 없이는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sup>41)</sup>

둘째,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니버는 성경에서 다윗 왕조 때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상징처럼 여겨진 것처럼 원

38)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x.

39)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62-63.

40) *Ibid.*, 36.

41) *Ibid.*, 59. 니버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마르크스주의의 특색과 특권층을 감싸고 도는 정부에 대한 염려가 있다.

시 종교에서 나타나는 종교에서 신은 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며 문화 종교의 신은 따라서 전쟁의 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팍스 로마나(Pax Romana)는 로마 병력에 근거한 로마식의 평화였다”라고 니버는 비판한다.<sup>42)</sup> 니버는 부르주아 사회의 신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애의 신”으로서 부르주아 그 이상의 이상을 드러내는 종교적 개념이지만, 소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상징인 미국 종교의 신은 미국을 위한 신이면서 미국의 가치를 최고 이념으로 삼는 신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봉건 유럽이나 “기독교 문명”이라고 강조하였던 스페인의 경우에서도 신은 전쟁의 신으로 비쳤다고 설명한다.<sup>43)</sup> 니버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소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이상을 따라 미국이 마치 “쇠퇴한 유럽 국가”를 떠나 선택한 ‘두 번째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는 또 다른 온건한 형태의 민족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을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자만하게 하는 이상 숭배와 다름없는 그릇된 가치 개념이라고 비판한다.<sup>44)</sup>

니버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사회 정치적 표현”처럼 여겨지는 것은 이상이라고 경고하면서 성경의 아합(Ahab)왕이 돈을 가장 중시한 것처럼 자칫 미국식 민주주의도 그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할 때 용기를 가진 예언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니버는 강조한다.<sup>45)</sup>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니버는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데, 특히 기독교가 마치 연극과 같은 오락물처럼 진부하기 짝이 없다고 보았으며,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감흥적인 종교 형식은 결국 도덕이나 심미적

42)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52-53.

43) Ibid., 53.

44)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116. 한편, 니버는 Berdyaev의 『러시아의 이상』(*The Russian Idea*)를 언급하면서 그가 이 책에서 나름 공산주의의 메시아적 성격을 분석하였지만, “민족과 문화 또는 계급”을 가장하고, “악의 최종적인 형태로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출현하는” 악의 특성에 대하여서는 간과하였다고 지적한다. ibid., 115.

45)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85-86.

인 형태의 종교로 바뀌거나 종교적 감정을 표출할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sup>46)</sup>

셋째, 니버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한계에 대하여 지적한다. 기독교의 정통주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 교리를 궁극적인 이상으로 대치하는 실수를 범하였고 자유주의는 시대적인 이성적 사고로 종교적 이상을 해석하려는 우를 범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으로 간주하였다고 보고 있다.<sup>47)</sup>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와 같은 것은 일종의 정치적 이상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신화적 상징”인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에 그치게 된다.<sup>48)</sup> 니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가 중세기의 왕이나 근대의 권력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과 아울러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sup>49)</sup>

지금까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니버의 날선 비판을 ‘풍요에 대한 오만’, ‘우상 숭배’ 그리고 ‘신학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니버는 민주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하여야 할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데,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46) Niebuhr, Reinhold,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162-163. 니버는 당시 주요 교단의 종교적 형식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감리교와 침례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니버의 입장은 1927년 글이다.

4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5. 니버는 기독교의 이상으로 잘못 여겨진 시대적 가치 개념은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협동조합, 국제 연합, 국제 무역 상호주의”와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한다. 니버는 그의 사상 초기에 이 책을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종교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참고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48) Ibid., 7.

49) Ibid., 57-58.

## V.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역할

지금까지 필자는 앞에서 라인홀드 니버가 이해한 ‘민주주의의 출현과 정체성’, ‘민주주의와 정치 윤리의 한계’, 그리고 ‘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치 윤리의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니버가 기대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니버는 예언자적인 신학의 지평에서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대하여 주목한다. 니버는 지주와 상공인 그리고 노동자들 간의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분석하는데, 가톨릭의 경우 지주 계급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력에 신적 질서를 부여하여 정당화하였고, 프로테스탄트는 상공인들의 편에 섰고, 부르주아 계급은 “과학과 진보적 이상주의”가 함께하여 상업 문명을 이끌어 결국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해석한다.<sup>50)</sup> 니버는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안정된 문명의 풍요”가 마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처럼 기만하여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안정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51)</sup> 니버의 관점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대안이며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한 차선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근본적 동기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한다.<sup>52)</sup> 니버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만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박애 정신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점잖은 척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결국은 “법과 질서”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마저 무시당하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53)</sup>

50) Ibid., 49-50.

51)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108.

52)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36.

53)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127. 니버는 기독교가 종교가 예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 정치적 혁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니버는 기독교의 종교가 이념과 민주주의를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매우 경계하며, 이는 역사 내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화하는 식의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행태라고 비판한다.<sup>54)</sup> 니버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권력의 구성과 권력의 균형”의 조건에 따라서 무정부 또는 독재로 변하는 것이나, 이상주의자들이나 현실주의자들이 이러한 권력의 행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볼 때 교회가 이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정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니버는 성경의 전통, 즉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정부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기구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한 사제 전통과 이를 비판하는 예언적인 전통이 있다고 설명한다.<sup>55)</sup>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니버는 민주주의의 허구와 기만에 대하여 기독교가 각성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니버는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비판적 정신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니버는 성서에서 바울 전통은 로마서 13장 1-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편에 섭으로서 종교 개혁 정신도 이를 이어받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권력 간의 갈등에 주목하면서 로마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리얼리즘의 이론을 펼쳤지만, 그의 이론이 중세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았다.<sup>56)</sup> 니버는 중세기의 정치 사상을 종합주의의 형태를 띤 입헌주의로 정의하며, 비록 성서의 예언적인 비판이 계속 이어졌지만, 교황권을 절대화하고 세속 정치는 자연법과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스토익-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한다.<sup>57)</sup>

54)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29.

5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279-280.

56) *Ibid.*, 279-284.

이후 르네상스의 시대에는 권력과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사관이 형성되었지만, 예언적 전통의 기독교적 사관이 지적하는 요소가 모자랐다고 니버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도덕적 비판주의로, 마르크스는 리얼리즘을 통하여 권력의 도덕적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였다고 설명한다.<sup>58)</sup>

니버는 민주적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근접한 사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권력의 적합성을 저울질한 프로테스탄트 배경을 살피는데, 루터는 바울처럼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국가의 권력에 “무비판적인 도덕적 종교적 재가”를 허용한 데 반하여 가톨릭과 르네상스, 그리고 정치 이론을 적절히 조화시킨 중도적인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의 반(semi)-섹트 운동과 초기 정치에 대하여 염세적인 입장에서 후기 그 견해를 바꾼 칼빈주의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sup>59)</sup> 니버의 분석에 의하면 후기 칼빈주의의 특징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탁으로서의 정부”에 대하여 우호적인 견해를 유지는 하되,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칼빈은 왕은 백성들을 정의롭게 통치하며 백성은 왕을 따르는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지만, 이러한 계약이 백성과 왕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 그리고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3중적인 계약으로 보았다고 니버는 설명한다.<sup>60)</sup>

니버는 칼빈주의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는데, 특히 왕조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전통적인 자연법이 신적 질서를 왕권에 부여한 것을 넘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

57) Ibid., 284. 니버는 시민법을 통하여 중세기의 입헌주의가 절대적인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Carlyle의 이론을 통하여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Carlyle, *Medieval Political Theory in the West*, Vol. VI.” Ibid., 284.

58) Ibid., 287. 니버가 르네상스 이후 정치 사관에 대하여 비판할 때 Machiavelli, Thomas Hobbes, Jean Bodin, Hegel, Bosanquet 등을 같은 부류의 사상가로 언급한다.

59) Ibid., 288. 니버는 소수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루터주의가 민주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60) Ibid., 292. 칼빈의 해석에 대하여 니버는 다음을 인용하고 있다. “*Lex Rex*, iii, iv (1644).”

게 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신학적 배경에는 베자(Beza), 존 녹스(John Knox), “네덜란드와 미국의 칼빈주의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제한적 정부”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강조한다.<sup>61)</sup> 니버는 이처럼 정치 경제적인 민주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칼빈주의가 그러한 경우이고 가톨릭과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영국 국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62)</sup>

니버는 그의 초기 저작 『기독교 윤리학의 해석』(*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에서는 루터보다는 칼빈주의의 저항권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인간의 본성과 운명』(*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1941)에서도 칼빈주의의 관점을 강조하였지만, 후기 저작인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The Self and Dramas of History*, 1955)에서는 루터와 칼빈이 둘 다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에 순종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폭군 살해”에 정당성에 대한 점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3장의 세속 정부에 대한 기독교의 권력에 대한 ‘순종’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명목]의 낙타 코가 처음으로 종교 개혁의 장막에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신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sup>63)</sup>

셋째, 니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과신이나 맹신을 벗어버리고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도덕적 요소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니버는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종교는 ‘겸손’(humility)이나 ‘관용’(tolerance)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과 우연성의 속성을 이해하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sup>64)</sup> 니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겸손이나

61)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59.

6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86. 니버는 이러한 관점이 트뢰치(Troeltsch)의 해석과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한다.

63)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26.

관용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였던 시기를 검토하면서 17세기 앵글로-색슨(Anglo Saxon)의 관용주의는 크롬웰(Cromwell) 시대 종교적 분쟁 시기에 열광주의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중도적인 앵글리칸(Anglican) 계열로 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온 “독립 교회파”와 이에 반기를 든 수평당(Levellers)이 그 예라고 니버는 설명하며, 아울러 존 밀턴(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와 존 살트마쉬(John Saltmarsh)의 『성전의 연기』(*Smoke in the Temple*)를 소개하는데, 특히 살트마쉬의 겸손에 대한 관점은 종교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니버는 강조한다.<sup>65)</sup>

자 이제 서로에게 잘못이 없다고 가정하지 맙시다. ...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은] 그에게나 나에게 어두운 [데서 찾는] 일이기 때문에 ...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같이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sup>66)</sup>

지금까지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로 ‘예언자 정신’,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기독교적 덕목인 ‘겸손과 관용’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니버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공공성에 대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 이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64)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94.

65) *Ibid.*, 94-95.

66) *Ibid.*, 95. 니버는 이 인용의 출처를 별도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 VI. 민주주의의 미래

니버는 민주주의는 사회 정치적인 구성체로서 인간 존재를 위하여 두 영역에서 그 소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적 성장과 인간의 사회적 특성”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삶에서 유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모든 인간의 공동의 필수 요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67)</sup> 니버는 ‘전적인 독재와 완전한 자유’, ‘전쟁과 완전한 평화’ 또는 ‘폭력과 비폭력’ 그리고 ‘부정의와 완전한 평등’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방안이 있다면 “독재와 상대적인 민주주의” 또는 “전쟁과 불편한 평화”, 아니면 “폭력과 그리고 폭력 없이 사회적 힘을 조정하되 그렇다고 충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일종의 정치력”, 아니면 “부정의와 그리고 평등을 위하여 움직이고 평등의 가치를 통합하는 일종의 정의” 사이에서 선택하는 방법 외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의 한계에 대하여 직시할 것을 주장한다.<sup>68)</sup> 이러한 대척점의 사이를 민주주의는 줄타기해야 하는데, 니버는 ‘지식인들의 책임’, ‘공동체 정신의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에 지식인들의 책임이 강조된다. 니버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대중의 두려움이나 염려와 같은 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리더들은 대중이 보지 못하는 절망과 같은 것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9)</sup> 니버는 국제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오히려 지식인들의 유토피아적인 발상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67) Ibid., 10.

68)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75-76.

69) Ibid., 47.

상식 수준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이유는 문명의 한계라고 지적한다.<sup>70)</sup> 따라서 민주주의가 만일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정치학으로서 이론적 깊이와 그리고 정치 체계로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과 권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니버는 강조한다.<sup>71)</sup>

둘째, 공동체에 안정에 대한 민주주의의 사명을 니버는 강조한다. 민주주의가 수호하여야 할 이념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통치자들의 과도한 욕망을 저항하기 위하여 개인을 정치적이며, 제한적인 힘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니버는 강조한다.<sup>72)</sup> 니버는 인간과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민주적 일치성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사회 안에서 개인은 공동체와 유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개인의 목적은 공동체의 성취를 전제로 하며, 둘째, 개인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되, 인간의 생명력을 통한 창조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이 자체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력이나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경계가 필요하며, 셋째, 개인의 생명력은 “생의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결정체” 그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인간의 영적 특성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를 파악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고 니버는 정리한다.<sup>73)</sup> 니버는 전통적인 단일 민족성을 표방하였던 중세기의 봉건제를 지나 근대의 문화는 인종과 계급, 도덕적 가치관에 다양성과 나뉠 과학적 기술 세계관의 진보를 이루고 있기에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조화와 삶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한다.<sup>74)</sup>

70) Ibid., 72.

71) Ibid., 87-88. 니버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당시의 정치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타임즈』(The Times)의 경우 '윈스턴 처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72)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36.

73) Ibid., 38-39.

셋째, 민주주의는 지속해서 발전하여야 하는 이념으로 니버는 강조한다. 니버는 민주주의가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계급 충돌 때문에 파괴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우선 “자유 조건 안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 하나는 계급 간 ‘균형’(equilibrium)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이 균형이 “경제 사회적 상황의 발전에 맞추는 권력의 변화에 따르는” 맥락에서 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75)</sup> 따라서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억제하며 그리고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지 비판하는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헌신한다.”는 것이 니버의 희망이다.<sup>76)</sup>

니버는 건강한 민주주의라면 경제적 평등을 위하여 정치적 권력의 동등한 분산을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을 통하여 “농부, 노동자, 중산층의 연대”가 그 좋은 예였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미국은 점차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과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77)</sup> 니버는 미국 헌법이 나름대로 전통적인 군주제를 대신하는 “안정의 상징”이자 “정부의 지속적인 권위”라고 해석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 그나마 민주주의의 유기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sup>78)</sup>

니버는 민주주의가 이바지하는 일부분은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자유 개념을 통하여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은 좋게도 애매모호”한 관점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권력의 분산”을 강조하는 특성상 권력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강

74) Ibid., 86.

75) Ibid., 102.

76)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4.

77)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23.

78)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77-178.

조한다.<sup>79)</sup> 니버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회 내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는 권력의 균형과 산업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경제적 권력의 독점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sup>80)</sup> 아울러 “민주주의가 모든 문화적인 관점을 비판하는 견해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 사이의 강압적이지 않은 조화를 성취하는 일종의 영구적인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애써야 할 최종 목표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니버는 확신한다.<sup>81)</sup>

## VI.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라인홀드 니버의 정치사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니버의 초기 사상은 매우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후기에는 종교적 가치 개념인 겸손(humility)과 연관하여 민주주의 이념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니버는 민주주의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양자가 다 겸손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겸손은 종교적 겸손과 반드시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이 수반되는 민주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는 법을 모르는 도덕적 냉소주의자들”에 의하여 형성되지도 않으며, 그

79)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12.

80) Ibid., 22. 니버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 이면에는 당시 농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제퍼슨(Jefferson)식의 국토 발전 계획에 반하여 엄청난 규모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81)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6.



렇다고 법은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흐르는 타락의 징후에 대하여서 통찰력이 부족한 도덕적 이상주의자들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니버는 강조한다.<sup>82)</sup> 니버는 민주주의가 비록 정의나 평화와 같은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념이라 할지라도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이끄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심지어 민주주의의 이념을 정복자의 위치에서 패배 국가들에 강제로 주입하려는 듯한 태도야말로 자만과 위선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sup>83)</sup> “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 도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나 유용한 그런 방법론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방법이다.”<sup>84)</sup>

어쩌면 니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실제 권력의 탐욕과 물질의 수단으로 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는 현실 정치(政治)에 이상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으며, 기독교 또한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추를 임의대로 저울질하였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거리가 먼 이론처럼 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원하였던 민주주의의 근본 목적인 ‘인간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양자의 부단한 성장을 기대하되,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저항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지평에서 이루어진 니버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본다.

82)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104.

83)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69. 니버는 국가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권력의 방종한 사용에 대하여 경고하며, 그 예로 독일 군국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Ibid., 68.

84)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43.

| 주제어 |

라인홀드 니버, 기독교 정치 윤리, 민주주의, 권력, 공공 신학  
(Reinhold Niebuhr, Christian Political Ethics, Democracy, Power,  
Public Theology)

논문접수일: 2020년 8월 20일 논문수정일: 2020년 9월 9일 논문게재확정일: 2020년 9월 20일

##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 \_\_\_\_\_.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 강정희. “라인홀드 니버의 민주주의론에 근거한 한국 시민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과 사회』 30(2) 2016.
- 권오왕. “한국 정치 이행기의 기독교 정치 윤리를 향하여.” 『신학사상』 173 (2016/여름), 한국신학연구소.
- 한배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요체와 평가.” 『신학사상』 182 (2018/가을), 한국신학연구소.

## 한글초록

인류 사회가 염원하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가 발전 중이라고 하면 ‘낭만주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권력의 의지’로 점철된 분쟁의 역사라는 어두운 면만 부각하자니 ‘비관주의자’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역사에 대한 희망을 품으면, 그는 ‘이상주의자’ 임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일종의 파노라마처럼 희망과 절망, 자유와 억압,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성과 신앙 사이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도 이런 맥락에서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의 사조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급 간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한 현 인류 사회의 정치적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참상을 경험한 국제 사회의 갈등에서 꽃을 피운 서구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삼권 분립을 통한 권력과 경제의 분배에 그 목표를 둔 민주주의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유를 신장하는 인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서구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인간 정신의 세계화가 아닌 상품의 세계화로 그 의미가 퇴색한 ‘세계화’의 틈 사이에 ‘국제 금융 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국제 사회를 보호 무역주의로 전환하게 하고 있고, 신 냉전 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은 전 세계를 군비 경쟁의 시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성찰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라인

홀드 니버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학문적 맥락에서 민주주의 안에 작동하는 권력의 속성을 깊이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정치 윤리의 관점에서 니버가 제시한 예언자적인 성찰은 민주주의 이면에 있는 허구와 실상을 낱알이 파헤치고, 기독교가 취하여야 할 공공 영역에서의 사명에 대하여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고 본다.

## **A Study of Reinhold Niebuhr's Thought on Democracy — The Identity of Democracy and The Role of Christianity**

Kyoung-Dong Yoo

Professor, Christian Ethic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 person will be regarded as 'romanticist,' if that person claims history is developing to achieve justice, equality, and peace for which human society so craves. However, if the person stresses the dark facet of the history of conflict, bruised with the 'will for power,' he will be labelled a 'pessimist,' while a person hopes for transcendent work in history, he will be regarded as an 'idealist.' In a sense, history can be regarded as a panoramic drama of hope and despair, freedom and suppression, and reason and faith.

With such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n mind, this paper will examine the democracy contemplated by Reinhold Niebuhr. Reinhold Niebuhr deeply analyzed the attributes of power working in democracy in the academic context of political realism and gives a clear opinion on the role of Christianity. The prophetic ref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political ethics by Niebuhr, will expose fiction and facts existing in the background of democracy, and propose direction in which Christianity must take in the public domain.